

Sermon of the Week:

Cain and Abel: Striving in Flesh or Living by Faith

Passage: Genesis 4:1-7

Date: November 3, 2024

Pastor: Dongsuk Chung

In this passage, two aspects of human life are depicted through Cain and Abel. Some follow Cain's path, while others follow Abel's path.

Cain heard from his parents, Adam and Eve, about the consequences of not obeying God's Word despite receiving it, by choosing to accept the devil's lies. However, he did not accept their testimony and instead offered his hard-earned crops—the result of his sweat, blood, and tears—as an offering to God. From a worldly perspective, Cain's actions seem reasonable and justifiable: the idea that through my effort to become holy, I can bring glory to God. Yet, God does not desire us to strive to be holy through our efforts; rather, He wants us to die to ourselves so that Christ may live in us, for it is Christ within us who embodies holiness and goodness.

When humans rejected God's Word 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I"—the sense of self—came into existence. This "I" is the persona of Satan that has entered us through his deception. Therefore, the Christian faith should not begin with "I". Originally, when God created humans from the dust of the earth, there was no such thing as "I". God, as the Creator, saw the state in which He could come into us as the Lord and said that it was "good".

Just as we were unable to help in any

way when God the Father created us, we could do nothing to contribute when Jesus the Son came as a man,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to give us life. It was not human effort but Jesus'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that led to a new creation. And the Holy Spirit came to help us believe this truth. God the Father created me, God the Son redeemed me, and God the Holy Spirit came to complete this work within me. When I understand that my whole being—spirit, soul, and body—is saved in Christ and I continually accept this message, that is faith, and it is through this that I experience salvation.

Abel also heard the gospel message shared by his parents and accepted it by faith. He understood that his very existence, as one who had also eaten the forbidden fruit, made him a sinner, and the result of this sin was death. Abel recognized that he was a sinner, so he offered a lamb as a symbol of his confession that he had nothing to rely on or to offer but Jesus, the lamb of God. Similarly, the goal of believers who are redeemed by Christ is to live a life that reveals Him. The life that God desires as worship is one where the Lord enters into us—who are made in His image—and we live to manifest Him. When I die to myself and the living Lord within me is revealed, my life becomes worship—whether in my home or at my workplace. My life becomes a living worship unto the Lord.

When Jesus died and was resurrected, the salvation of our spirit, soul, and body was completed legally. The life of a saint is the progression of carrying out this completed salvation,

where Christ, who has come in the Spirit, takes over our soul and body. This is what it means to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this is sanctificati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is the perfect victory, and because Jesus' victory is our victory, we must not trust or follow the feelings or emotions that arise within us, but instead put them to death.

As this process of dying to the flesh continues, the salvation of my spirit, which has already been redeemed, flows down into my soul, bringing salvation to it as well. And when the Lord returns, a glorious transformation will take place—my spirit, soul, and body will be like His and enter into eternity and inherit His Kingdom.

The redemptive work of Christ on the cross has freed us from any problems. Issues arise only because the self is still alive, but if we die to ourselves, the problems disappear, for Christ's presence in us resolves everything. If "I" die, and Christ rules over my flesh and lives in me, there will be no issues. The self—the one who ate from the tree of good and evil and is full of problems—is the very one that was crucified with Jesus on the cross. We must join in the death that the apostle Paul speaks of when he says, "I die daily." This is the life of a saint.



Please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s camera for the link to the YouTube video of the full sermon.

심니소식

니싱교회



심싱교회

NOVEMBER 17, 2024

NASUNGCHURCH.NET

ISSUE 29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장 1-7절

날짜: 11월 3일, 2024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본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거짓된 말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땀 흘린 노력과 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사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무 일도 도울 수 없었던 것

처럼,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대신 노력하고, 대신 피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아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 몸 전체가 주님 안에서 구원된 것을 알고 이 소식을 계속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선악과 먹은 존재 자체가 죄인 것과 그 결과가 죽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어린 양을 드림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오시면 내가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배가 되는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 몸 전체의 구원이 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삶은 완성된 구원을 집행해 가는 것으로 영에 오신 그리스도가 혼으로 몸으로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성화이며 성도의 생활입니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온전한 승리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므로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 감정 등을 믿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점점 죽어 없어질 때마다 내 안에 구원 얻은 영이 흘러내려와 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내 영혼 몸이 주님의 몸처럼 되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그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으로 내가 죽기만 하면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죽으면, 주님이 나를 점령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투성이인 선악과 먹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하는 그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일정

- 시니어스쿨 가을학기가 매주 목요일 진행중입니다.

삼성교회 일정

- 시니어스쿨이 12월 12일(목)까지 진행됩니다.
- 11월 17일은 창립기념 및 추수감사예배로 모입니다.
-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 페이지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고 카메라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박현중 장로 (베드로선교회) - 출장 중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거동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상문 형제 (베드로선교회) -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종철 장로 (모세회) - 뇌 혈전치료를 일상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 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도난록 집사 남편 故 허대성님 (66세)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김문옥 집사 시어머님 (김영례 90세) - 고관절수술 후 와상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최라예 자매 (15세) - 위산과 담즙의 과분비로 위/식도/십이지장 염증과 궤양 있음, 소화기관들의 비정상적 호르몬 분비로 인한 기관의 염증 및 통증유발,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발견되고 근본적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추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권정희 집사 모친 양원숙님(86세)께서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암 수술은 잘 마쳤으나 수술 중 체장과 십이지장에 전이가 발견되었고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대로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 장미녀 집사 시부 남상설님 (92세) - 폐암 4기로 입원 중입니다. 병의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해



생명의 양식

아래는 정동석 목사님 설교를 요약한 삼성교회의 구역모임 공과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며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 본문: 로마서 7장 7-25절
- 해당 설교 영상은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1. 율법은 우리 본질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사람은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 속에 있는 죄를 비춰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죄로 인한 괴로움과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인격화된 사탄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이 선악과 먹은 결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 로마서 7장은 세 가지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마음의 법입니다. 혼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과 함께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입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곤고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곤고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3. 하늘나라의 백성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해 놓으신 것을 믿고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옛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비밀은 옛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죽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새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실재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각 남녀선교회 회장들께서는 2024년 선교회 결산 보고서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회 선교부에서는 이번주 11월 23일 (토) 김학철 목사님께서 섬기는 Home Depot 선교사역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출발은 아침 7시 30분에 교회 파킹장에서 출발합니다. 참석이나 donation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황찬익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 오늘 예배 후 식사는 김진희 자매님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삼나소식 웹사이트



<https://samnanews.modoo.at>